

대전 서구

한문희 '40년 철도맨' 코레일 만성적자 개선에 총력

올해 7월 제11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취임한 한문희 사장은 1963년 태어나 철도고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한국철도공사의 전신 철도청 역무원(9급)에 임용됐다.

1993년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총무처와 공보처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철도청에 복귀해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단 기획총괄과장·부산지역본부 부산열차승무사무소장 등을 지냈다.

철도청이 2005년 1월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비전경영실장·경영혁신실장·인사노무실장·기획조정실장·서울본부장 등을 맡았으며 2018년 2월 퇴직했다.

이후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 대표이사과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지낸 후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당시 한 사장은 한국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1차 평가를 통과한 5명 중 가장 높



은 점수를 받았다. 40년 동안 철도계에 몸담으며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고 풍부한 경험을 인정받아 2005년 한국철도공사 출범 이래 첫 내부 출신 공도 사장에게 임명됐다. 취임 일성으로 "안전 최우선의 전방위 혁신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철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최근의 철도 사고는 국민이 코레일의 실력을 미덥지 않게 생각하는, 우리

가 당면한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하며 "국민과 이용객에게 코레일의 저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이 맡은 바 임무에 자긍심을 갖고 책임을 명확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취임식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한 것은 전임 나희승 사장 시절 오봉역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 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지만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나 전 사장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임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나 전 사장 재임 시절 안전사고가 지속되자 한국철도공사는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6월 발표한 최근 2년간의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유일하게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으며 경영 적자도 계속됐다.

한 사장 취임 후에도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7년 이래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3~2027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당기순손실은 올해 3929억 원을 기록해 역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 5395억 원, 2025년 276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철도공사는 KTX에서 나온 수익으로 일반열차와 화물열차를 운영하고 있다.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일반열차와 화물열차를 운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적자를 해소하는데는 쉽지않아 보인다. 특히 무궁화호의 경우 기본요금 2600원인데 서울역~수원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궁화호가 2700원, 광역버스가 2800원으로 오히려 더 저렴하다.

최근에는 진주·포항·여수 등지로 SRT 운행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철도노조가 이에 반발해 수서발 KTX 운영을 촉구하며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된 상황에서 한 사장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한국철도공사 사장

- 1993~제37회 행정고시 합격
- 2005.11~한국철도공사 경영혁신실 실장
- 2006.7~한국철도공사 인사노무실 실장
- 2010.6~한국철도공사 기획조정실 실장
- 2013.10~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본부장
- 2014.4~한국철도공사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 2018.5~의왕ICD 대표이사
- 2021.11~부산교통공사 사장
- 2023.7~한국철도공사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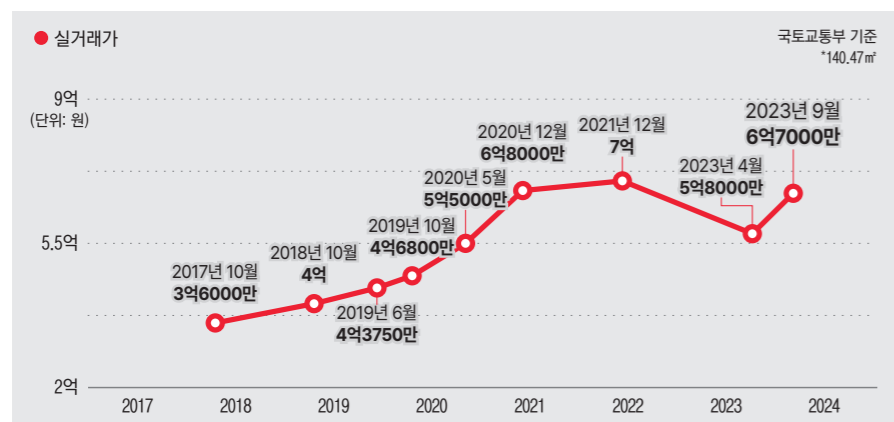
한편 그의 부동산 재력이 관심이다.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M아파트(사진) 한 호실을 2011년 5월 2억6000만 원에 매입했다. 해당 호실 면적은 공급면적 121.66㎡(약 36.8평), 전용면적 101.93㎡(약 30.83평) 등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같은 면적이 올해 7월 3억2800만 원·4억9000만 원, 8월 4억6000만 원·4억7500만 원, 9월 4억35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한 사장 호실도 4억 원대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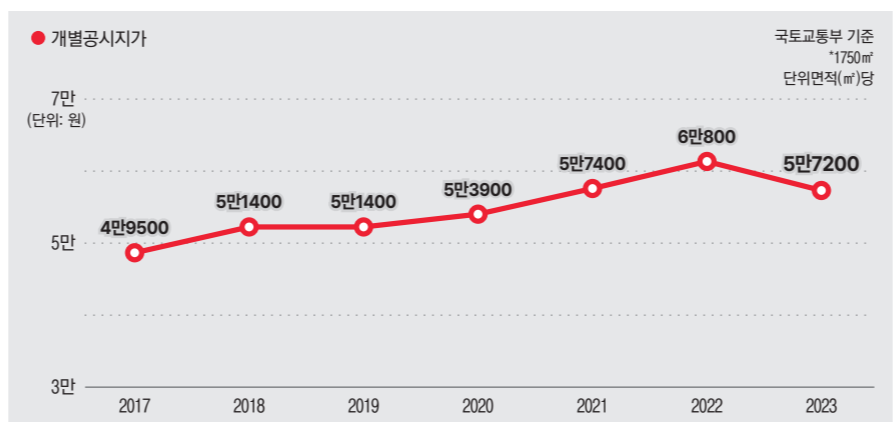
이 단지는 지상 최고 15층·9개동·전용면적 101~134㎡·총 630가구 규모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정부청사역이 인근에 있고 주변에 대형마트·병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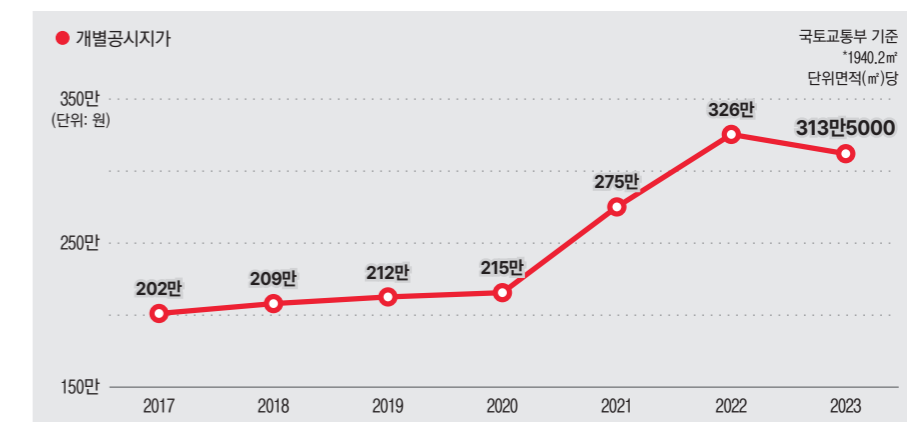
토지(대전 서구)



무지개아파트(대전 서구)



토지(대전 서구)



윤용대 전대전시의회시의원

윤용대 전 대전시의회 시의원은 1954년 태어나 한밭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대전 서구의회 구의원에 당선돼 첫 정치관에 발을 들여 내리 3선에 성공했다. 2006년에는 국민중심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국민중심당에서 상무위원, 중앙연수원 위원장 등을 지냈고 2008년에 자유선진당으로 옮겨 대전시장 부위원장, 대전서구를지구당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박근혜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본부장을 맡았으며 2018년에는 대전시의회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해 5월 그는 "춧불혁명에 의해 탄생된



더불어민주당이 총체적인 개혁에 미진했고 국민과 소통부족으로 국민 분열을 초래하고 서민경제의 기본적인 삶이 무너지고 있으며 대선 패배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하며 탈당했다. 이후 서철모 대전시 서구 구청장 국민회의 후보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 당선에 일조했다.



김광희 전대전시정무부시장

김광희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은 성균관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에서 문학 석사, 대전대에서 사회복지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율리치추진대전시위원회 사무국장, 대전 중구 재향군인회 부회장, 대전시위민봉사위원회 위원, 대전시 서구 체육회 이사, 대전시의회 시의원, 대전시체육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2005년 초대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취임해 탁월한 리더십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대전의 첫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에는 대전 시티즌 사장을 맡았으나 팀의 간판 선수 최은성과 갈등을 빚은 뒤



사태가 악화돼 결국 사퇴했다. 2020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리더 회원으로 가입한 그는 "대전 지역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나눔리더를 많은 분에게 알리고 싶어 함께하게 됐다"며 "작은 사랑의 실천을 조금씩 키워나가 더욱 큰 사랑을 베풀며 살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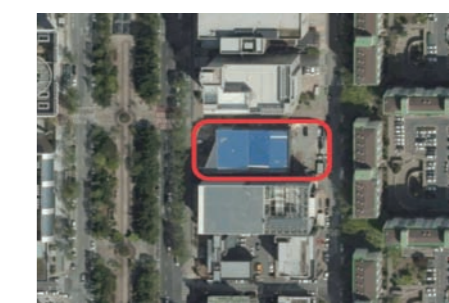


박찬호 전야구선수

박찬호는 공중중동초 3학년 때 처음 야구를 시작했다. 1993년 한양대 1학년 시절 미국 퍼벌로 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해 최고 시속 156km 강속구로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듬해 메이저리그 LAD저스와 120만 달러에 계약한 뒤 4월 데뷔전을 치뤘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가 됐다. 이후 2년 동안 마이너리그에서 실력을 닦았으며 메이저리그에 다시 입문해 선발투수로 1997년부터 5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거두는 등 팀의 에이스로 활약하며 2001년 12월 텍사스 레인저스와 5년간 6500만 달러에 초대형 FA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뉴욕 메츠, 휴스턴 애스트로스 등 여러



팀을 전전했으며 2010년까지 메이저리그 통산 124승을 거두며 아시아 선수 최다승 기록을 경신했다. 2011년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팔로스에 입단한 뒤 2012년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2년간 활약했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입정동 '32~41층 빌딩 5개동·1만㎡ 녹지' 탈바꿈

서울 중구

서울시는 17일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해 중구 입정동 175-1번지 일대 '세운3-23, 3-8-9-10, 6-3-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있는 해당 구역은 기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중·소규모 개발로 추진 중에 있었으나 지난해 4월 발표한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라 구역을 통합 확대하여 개방형 녹지를 도입하는 것으로 금회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재정비촉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낙후된 지역을 고밀·복합개발해 지상의 풍부한 녹지와 어우러진 대규모 업무 인프라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하여 도심 기능을 높이는 한편 건폐율 60%를 50% 이하로 축소해 지상부 개방형 녹지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세운 재정비촉진지구에 들어설 빌딩 조감도.

서울시

3-23구역은 용적률 1525% 이하·높이 193m 이하, 3-8-9-10구역은 용적률 1555% 이하·높이 203m 이하, 6-3-3구역은 용적률 1429% 이하·높이 166m 이하로 결정됐다.

구역 3712.92㎡(45.06%), 3-8-9-10구역 5055.19㎡(48.8%), 6-3-3구역 1843.35㎡로 해당 구역 전체에 확보되는 녹지 규모는 약 1만㎡에 달한다.

금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을지로 일대에 지상 32층~41층 규모의 프라임급

오피스 5개동이 신축되며 1층은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로비를 조성해 공공에게 개방한다.

또한 을지로3가역 및 을지로 지하상가와 신축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을 통합 개발해 시민들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지역에 쉽게 접근하고 지역 내 이동이 용이도록 계획했다. 지하공간에는 다양한 문화여가시설을 조성해 지상의 개방형 녹지와 함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계획했다. 건물 최상층에는 남산 등 서울도심 대표 경관자원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 특성을 활용해 전망대 2개소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대규모 업무 시설 도입과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을 조성해 을지로의 중심 업무기능이 확장되고 다양한 신산업·신기술의 소통과 지식 교류 공간을 마련해 도심 경제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전농8구역 1750가구 아파트 건립

서울 동대문구

2029년 수도권 전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등이 지나는 청량리역 인근에 축구장 규모(약 7000㎡)의 쾌적한 녹지공간을 품은 1700가구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17일 열린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전농8구역(동대문구 전농동 204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통해 전농8구역은 19개동·지하 4층·지상 32층·1750가구(공공주택 352가구 포함)의 공동주택이 공급되며 공공기여 등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체육시설·공영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이다. 소규모 자투리공원 대신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 전체 녹지축과 연계한 7000㎡ 너비의 소공원을 배치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충분한 녹지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통학 환경을 고려해 안전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통근족을 확보



전농8구역 재개발 위치도.

서울시

하고 지상부에 개방감을 줌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계획이다.

이로써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인 전농8구역은 2024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거쳐 2026년 착공 및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